

새로 나온 책

동물에겐 우리가 ‘자연환경’

수원시민들은 겨울마다 찾아오는 볼청객, ‘까마귀 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써 3년째다. 전깃줄을 새까맣게 태운 까마귀들은 정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배설물 테러를 일삼는다.

인구 과잉 시대가 도래하면 그나마 남은 한 줌의 자연환경이 전부 파괴될 것이라는 비관론은 옳다. 네덜란드의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저자는 인간이 바글대는 도시에서 자연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인간과 자연이 독특한 하모니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소음 공해와 교통 체증이 극심한 곳,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거대한 도시에서 동식물들은 어떻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적응한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연의 여러 개체들이 ‘도시 생활자’가 돼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저자는 “이제는 집까마귀의 서식지를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새들에 한해서는 ‘자연환경’이 곧 우리 인간이다”고 말한다.

동식물들이 도시에 적응하기까지 어



도시에서 살기 위해 진화 중입니다

메노 스틸트하위전 지음/제효영 옮김/현암사

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자연의 여러 개체들과 이들이 놓인 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한다. 런던 지하철역 터널 안에 사는 모기와 개미집에 얽혀사는 딱정벌레를 비롯해 집까마귀, 검은머리물떼새, 나방, 도마뱀, 비둘기 등 도시 속에서 생존한 개체의 진화 과정을 소개한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도시의 무법자 비둘기가 달리 보인다. 인도를 차지한 비둘기들이 뻘뻘하거나 알뜰하게 보인다면 일독을 권한다.

368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ik1@

지역전쟁

임지현 지음/휴머니스트



역사학은 문서와 기록을 근거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문하고 재단하는 데 치우쳐 있지만, 기억 연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탈민족 담론을 주도해온 역사가 임지현 교수가 ‘기억 활동가’로 변신을 꾀하며 새 책을 냈다. 기억 연구가로서 그는 죽은 자의 억울함을 산 자에게 전해주는 영매 역할을 자처한다. 기억과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300쪽. 1만8000원.

남겨줄 시간이 없습니다

어슐러 K. 르 권 지음/진서희 옮김/황금가지



‘어스시의 마법사’로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에 이름을 올린 가장 어슐러 르 권이 2010년부터 5년간 남긴 글 40여편을 담은 에세이집. 책은 여든을 넘긴 노년의 삶과 현대의 문학 산업, 젠더 갈등과 정치적 이슈 등 주요한 이야기들을 담은 네 챕터와 반려묘와의 에피소드를 엮은 세 챕터 등 총 일곱 챕터로 구성됐다. 미국의 도덕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적인 비유에서부터 삶에 대한 사색까지. 노작가의 세심하고 담백한 유머가 돋보인다. 322쪽. 1만3000원.

기본으로 이기다, 무인양품

마쓰이 타다미쓰 지음/박재이 옮김/위즈덤하우스



본질만 남기고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버린 디자인으로 무인양품은 1980년 설립 이후 ‘무인신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매출액이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불거졌고, 마쓰이 타다미쓰가 사장이 된 2001년에는 창립 최초로 매출 이익이 감소해 38억엔의 적자를 냈다. 그로부터 1년 후 무인양품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책은 무인양품이 위기를 딛고 성공한 비결을 담았다. 252쪽. 1만40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구슬봉이

보랏빛 작은 꽃잎에는 추운 겨울 두어 달, 찬바람 서너 달... /고흥곤 작

5만9900원에 만나는 ‘자유’

음질·조작·충전 ‘굿’... 가성비 ‘甲’

구기자의 뜬구쓰구

1 스카이 ‘스카이핏 프로’

메트로신문은 쏟아지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전달하기 위한 솔직한 체험기를 게재한다. ‘구기자의 뜬구쓰구’를 통해 IT·전자제품, 서비스, 공간 등 여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어폰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 이어폰입니다. 왼쪽 이어폰입니다.”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자 이어폰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됐음을 알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선 이어폰만 써왔던 저자에게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충전케이스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영킨 이어폰을 풀어서 이어폰 단자에 꽂고 귀에 꽂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인생 처음으로 사용해 본 무선이어폰은 스카이(SKY)의 ‘스카이핏 프로(모델명:IM-A105)’다. 길거리에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20만원이 넘는 가격 탓에 싯뚱 구매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휴대폰을 사면 함께 주는 이어폰으로도 만족스러운 음질을 느끼며 살아왔던 터다.

다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지인들의 극찬에 궁금하기는 했다. 그러던 중 스카이가 5만9900원의 가격으로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3개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 제품 박스에는 마이크로 5핀 USB 충전 케이블, 양쪽 이어폰, 충전 케이스, 여분의 이어팁이 들어 있다. 간단한 구성이다.

이어폰에는 3개의 버튼이 있다. 스카이 로고가 쓰여 있는 메인 버튼, 기능키 A, 기능키 B 버튼이다.

메인 버튼은 통화, 음악 일시정지·재생, AI비서 호출, 전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메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통화가 종료된다. 전화가 걸려올 때 메인 버튼을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 전화가 거절된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되고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재생된다.

메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카이핏 프로를 착용한 모습. 스카이핏 프로는 7초 간격으로 스카이 로고에서 푸른 빛이 반짝인다(오른쪽). /구서윤 기자

무게 4.9g... 최대 6시간 이용 버튼조작 간편하고 AI 연동도

녹음파일이나 통화시 음량 작고 실시간 배터리 잔량 확인 어려워

의 경우 구글 어시스턴트나 삼성 빅스비, iOS의 경우 애플 시리를 호출한다. “시청역 근처 맛집 찾아줘”, “신나는 노래 들어줘”라고 말하자 원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터치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기능키를 통해선 음악 재생과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다. 메인버튼의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 목록의 다음 곡을 재생해주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전 곡을 재생해준다.

◆반짝이는 스카이 LED 불빛(★★★★☆)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귀 전체가 이어폰으로 꽉 채워진 기분이 든다. 무게는 4.9g으로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 1시간 이상 착용에도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어폰을 사용 중일 때는 메인 버튼의 스카이 로고에서 푸른색 불빛이 약 7초 간격으로 반짝인다.

최대 연결거리는 10m다.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자 음악이 끊겼다. 가까이 가자 다시 노래가 재생됐다.

이어폰은 충전 케이스에 장착하면 자동으로 충전된다. 충전케이스는 가로 9cm, 세로 4cm로 한 손에 쥐기 편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린다. 충전 케이스에 이어폰을 가까이 대자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충전기 안에 들



어갔다. 충전이 될 때는 LED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완전히 충전된 이어폰으로 음악을 최대 6시간 들을 수 있고 충전케이스를 통해 3번 정도 완전 충전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24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다.

◆통화 품질은 아쉬워(★★★☆☆)

스카이핏 프로는 이어폰 양쪽에 노이즈(잡음)를 제거한 듀얼 마이크를 장착했지만 통화품질은 아쉬웠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유선 이어폰으로 통화할 때와 달리 스카이핏 프로로 통화하려면 큰 소리로 말해야 소통할 수 있었다. 상대방은 조금만 작게 말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때때로 소리가 울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음량도 유선 이어폰에 비해선 한계가 있었다. 다소 시끄러운 장소에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최대 음량으로 높였음에도 듣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선 이어폰으로 교체해 최대 음량으로 하자 선명하게 잘 들렸다. 다만 녹음 파일이 아닌 음악을 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자 스마트폰 화면에 ‘무선 이어폰의 배터리가 10% 남았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알림이 뜨기 전까지는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없었다. 블루투스로 연결됐을 때 매번 아니고 가끔씩 배터리 잔량을 화면에 띄워줬을 뿐이다.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사용자가 원할 때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능과 편리성을 갖췄다. ‘가성비 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신학기·웨딩 시즌... 까사미아, 반값·사은품 등 행사

24일까지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

까사미아는 이달 24일까지 신학기, 결혼 시즌 등을 맞아 가구 할인 판매, 가전 필수품 및 소품 등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학생 가구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라운니, 클로이, 노아, 앤디, 뮤즈 등 까사미아 인기 학생 가구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아이의 연령 특성에 맞춰 방을 꾸밀 수 있는 ‘밀리 시리즈’ 책상과 책장, 서랍형 책장을 세트로 구매하면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탁상시계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외에 싱글 또는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은 프레시 매트리스

를 반값에, 콰이어트 매트리스를 30만원 할인된 가격에 각각 만나볼 수 있다.

혼수 필수 품목인 침대와 식탁도 패키지 할인가에 제공한다. 퀸, 킹사이즈 침대 구매 시 수작업 공법으로 최상의 쿠션감을 갖춘 드림 콰이어트 매트리스를 정가에서 40만원 할인 판매하며 식탁 세트 구매 시엔 벤치형 의자를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게 구매 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5L 에어프라이어 ▲300만원 이상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권 ▲500만원 이상 구입 시엔 30만원 상당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각각 사은품으로 준다.

/김승호 기자 bada@

